



황폐한 세상 가운데
푸른 의의 나무로
세워지는 다음세대

사진 설명

조슈아트리(Joshua Tree, 여호수아 나무) 1-2월에만 약간의 비가 내리는 척박한 사막에서 자생하는 이 나무는, 잎으로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여 수분을 공급하고 2-3미터 가까이 되는 뿌리로 주변 수십 미터 땅속의 습기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최소의 수분만을 방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견고한 나무로 생명력을 유지한다.

- 기획 특집 ■ 파이디온 칼럼 ■ 사역 돋보기: 학령전·학령기·청소년 부서 사역 전략 ■ 2015 파이디온 여름 사역 주제 소개
- 사역 후기: 청소년 캠프·크리스천 티칭 세미나 ■ 파이디온 지부 이야기 ■ 책 이야기 ■ 생생한 선교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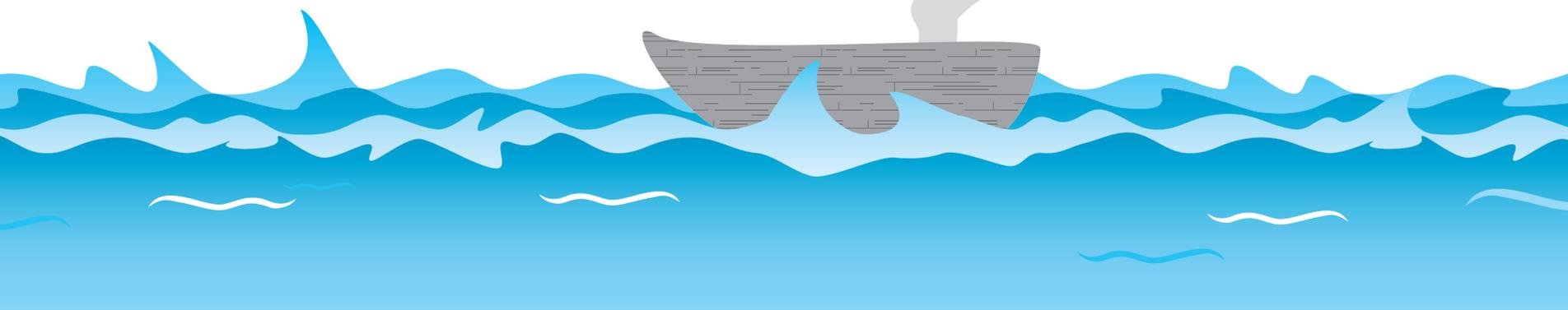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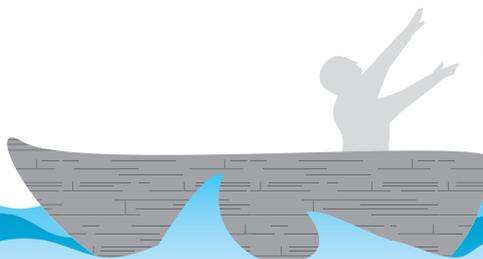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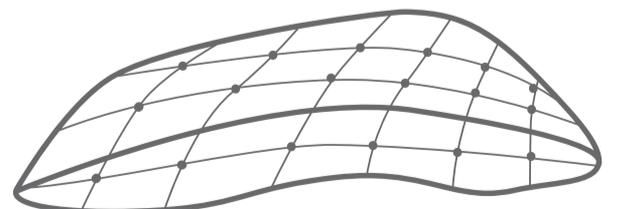
기획 특집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친구들교회 김만형 목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며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세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 힘이 빠진 제자들과 같은 심정을 느낍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 손에 쥐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다음세대를 위해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사역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개척을 향한 도전

저는 본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고 당시 <교회 교육을 깨운다> 주일학교 지도자 세미나와 SS혁신보고서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로는 연구사역을 통해 교회교육에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뒤 다시 교회를 사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가 많은데 굳이 또 다른 교회를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제게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에 또 다른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발견한 것은 많은 교회가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목사님은 큰 교회에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저희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인 200명 이하의 교회라면, 비율 상 어린이들은 30-40명 내외, 청소년들은 10명쯤 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명씩 학생들을 모으고 키우며 교육하는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밑바닥에서부터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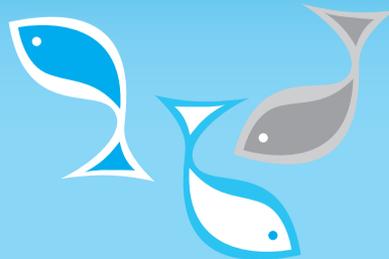
둘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개척교회의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저는 많은 학생에게 꿈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유행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황태자 그룹에 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태자 그룹이란 목사의 자녀나 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목회 자리를 하나라도 얻으려면 목사의 가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안에 진골과 성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골은 장로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성골은 목사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목사의 자녀가 되어야 앞으로 목회를 할 수 있고, 못해도 장로의 자녀 정도는 되어야 목회 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저도 없는 사람은 해골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목사나 장로의 가족이 되든지, 아니면 큰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야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른바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은 큰 교회의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하는 교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받는 신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겠다고 신학교에 왔지만 옛날처럼 천막을 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신세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앞서 그 길을 가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많은 선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한 번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한 지 2년이 지났고 아직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이미 10여 년이 넘는 도시에서 많은 교회들이 청년기의 힘을 가지고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제 마음속에 목양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했습니다. 유학을 다녀온 뒤 저의 전부를 쏟아 헌신했습니다. 사임하면서 유학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기독교교육연구소, 재단법인 에듀넥스트 교육개발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를 운영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일로 제 인생을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 그냥 내 앞에 올래? 앞으로 최소한 20년간 그렇게 지내렴’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 앞에서 진지하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계속해서 목양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다지 목양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할 마음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교육사역에 몸담고 행정과 기획 등의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서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이왕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좀 편하게 쓴다고 오래 쓰는 것도 아니니 효과적으로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염두에 둔 교회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 좋은 이름은 이미 거의 다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교회 이름을 찾다가 기존 교회들의 이름을 분석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이름이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성남, 분당, 서울, 이매, 수지 등과 같은 지역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소박하게 지역을 표기했는데, 지역을 넘어서는 온세계, 아시아, 지구촌, 온누리 등과 같은 넓은 의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추상적 개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랑, 소망, 꿈, 빛과 소금 등입니다. 이는 추상적 관념을 가진 말을 통해 사람들의 소망, 기대를 이루고 정서적인 만족을 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듯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능을 강조한 드림의 교회, 선교 교회 등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분석하며 것처럼 많은 교회 이름이 있는데 정작 사람과 관계된 이름은 많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교회에서 사람과 관계된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개념 중 친구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사랑을 드리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친구간의 사랑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들이 모인 교회, '친구들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교회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구성원을 이루고 그들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 지치고 외로울 때, 깊은 좌절과 아쉬움이 몰아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아주 다른 측면에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깊은 골짜기를 돌아 올라오게도 하시고, 솟은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셔서 고르고 평탄하게도 하십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기도 하시고 뺨으로는 하늘을 재십니다. 땅의 티끌을 되에 담기도 하시고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지식을 통달한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십니다. 그분은 땅 위 궁창에 앉는 분이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차일처럼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처럼 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폐기하기도 하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단칼에 헛되게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와 명성에 자고하지만,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말라붙고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개와 같이 됩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추다보니, 내 삶이 힘들고 아프다보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사이 크신 하나님은 잊혀지고, 내 안에서 나의 일 정도만 돕는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면 되었고, 남의 사역과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드물기만 했습니다. 혹시 그 경험이 있다 해도, 그저 내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안에서 고민해야하는 작은 하나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셨으며, 멸망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끝이 아닌 부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평화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가두어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의 크신 하나님과 그 역사를 보고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방을 멸망케 하실 분입니다. 지금은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역이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 모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매이는 것은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크게 일하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He did it at that time, He do it now.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경험한 과정

저는 상업주의와 성공주의로 팽배한 세상 속에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바르게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주어졌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장소라도 있는 게 어디냐며 감사함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개척 멤버 없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는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 멤버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18년을 지내다보니 제가 아는 사람은 그 교회 사람들뿐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밖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척한다고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의 교인들에게 연락해서 동역을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 없이 창립 날짜를 정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가족들, 그리고 전도사님 두 분, 집사님 한 분이 전부였습니다.

창립예배에 많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해주신 분들이 염려하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예배하나? 얼마나 사람이 찾아올까? 감사하게도 처음 한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대형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고, 조직망이 잘 짜인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교회 위치는 목회 여건상 최악이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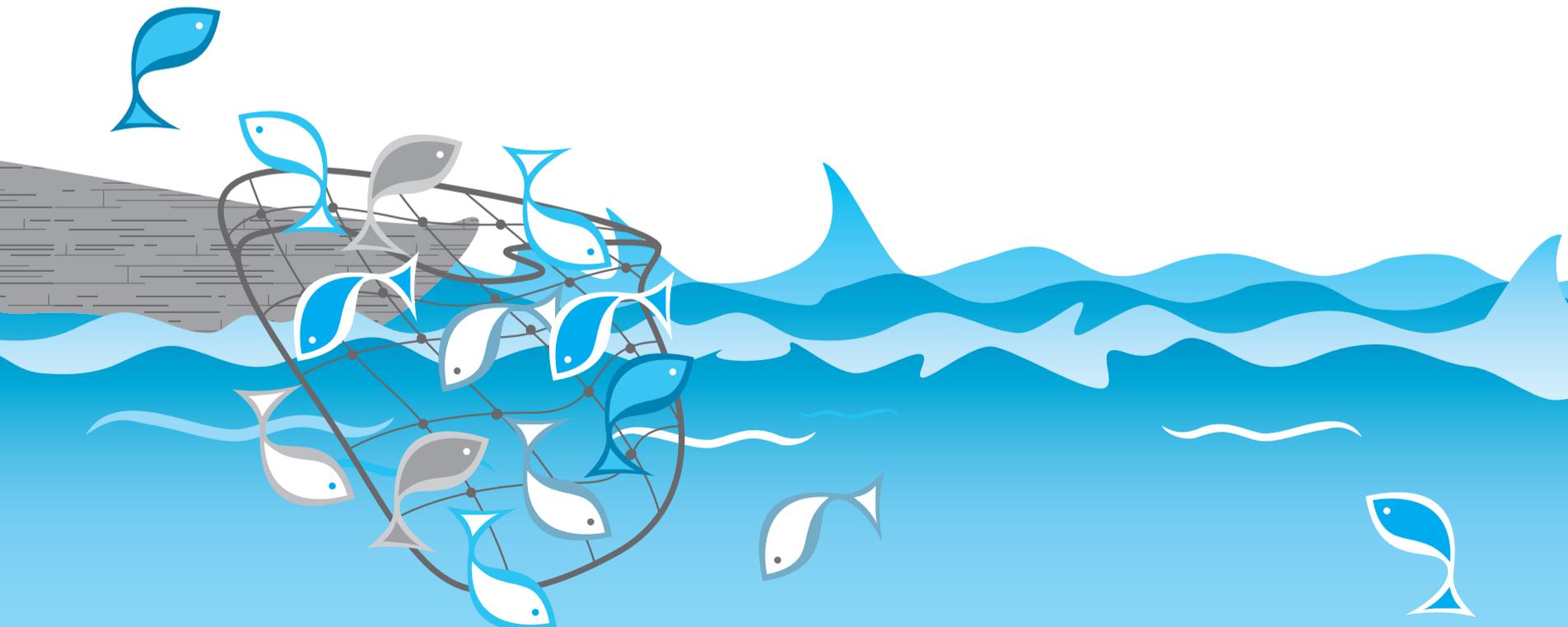
기존 교인이 없는데 주일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학생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야만 주일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것입니

다. 어린이 청소년 사역, 모두 다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역의 특성상 어린이를 전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도를 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전화를 해보면 전화번호가 달랐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낯선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끝 번호를 틀리게 가르쳐주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었지만 누구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연락이 되어도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주일 아침에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주일 오전에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전도하고 청소년 사역을 키워가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티격태격했습니다. 지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회교육 사역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 수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사역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2003년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존립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기였습니다. 2004년은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시기였습니다. 2005년은 교회의 활로를 모색하고 전도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예배당에서 지상 예배당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교회의 주인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생명력은 개별적인 관계에 있다는 깨달음

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좀 더 관계에 집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회교육은 지금까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가져다가 쓰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개별적인 관계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과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데는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는지요? 우리가 가르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이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전도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성패는 헌신하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헌신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룹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 안에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자를 존중하고 조력하는 풍토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 개혁은 참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밑바닥에서부터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때론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사역의 그물을 내려봅니다.

김만형 목사

• 친구들교회 담임목사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교육학교수
• (재)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원장



다음세대 성가대 지도법 세미나

일시	2015년 4월 7일 - 5월 19일(매주 화, 6주)
시간	오후 7시 - 9시
대상	어린이 성가대 지도교사
내용	어린이 성가대 지도법
장소	파이디온선교회 강의실(2층 디모데홀)
등록비	3월 23일까지 10만원/ 4월 2일까지 11만원/ 4월 3일부터 12만원 *특강 부분 등록: 40,000원 (부분등록은 5, 6주차 2주간 특강만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현장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희영 간사(070-4099-7715)



부모-십대 자녀를 이어주는 30일 대화 활용 세미나 (사역자 과정)

일시	2015년 5월 11일(월)
시간	오후 1시 - 5시 30분
대상	청소년 사역자, 교사 누구나
내용	교회에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모 교육 2강, 콘텐츠 활용 매뉴얼 및 실제 적용 교회 사례들(부모교육과의 연계 과정)을 소개합니다.
장소	미정(홈페이지 추후 공지)
등록비	30,000원(도서, 강의안, 활용 자료, 간식 제공)
등록 방법	온라인 등록
문의	오세영 목사(070-4099-7716)

Happy Easter!

파이디온스퀘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계란 포장 상자

for Kids



포토존, 무대배경으로 활용하는 부활절 현수막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활절 콘텐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필독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설교 · 예배 기획안 자료



부활의 기쁨을 강화해주는 부활절 영상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파이디온 어린이 CCM

부활절을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

파이디온스퀘어에 오셔서 더욱 풍성한 부활절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나 보세요.

다음세대 사역의 모든 것
파이디온스퀘어
www.paidionsquare.com



영적 역량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부서 사역 전략 _ 학령전



- 1 기도방석(방석과 연결해 손을 모은다)
- 2 헌금 봉투
- 3 암송센터(냉장고 박스를 이용하여 조립식으로 만든다)
- 4 예배 자리

함께 세워가는 예배, 기도, 전도 훈련

유아부나 유치부 어린이들의 영적 역량을 위한 계획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보다 장기간, 즉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간 계획을 잡을 때 미취학 어린이들의 발달수준이 읽기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쉬운 부분부터 계획을 잡는다. 늘 하는 예배, 기도, 전도의 훈련이지만, 미취학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한 훈련을 소개한다.

단계	전략	세부 사항
하나님 알아가기	말씀	말씀 읽기표로 말씀을 읽는다.
	암송	암송 말씀을 코팅해서 미리 나누어 준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기도	기도방석을 만들어 매일 잠자리에서 기도 훈련을 한다.
하나님 자랑하기	전도	믿지 않는 부모님(조부모님)께 복음 손으로 전도를 한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헌금	헌금의 의미와 자세를 배운 후 헌금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한다.
	예배	예배 자리를 만들어본다.

구체적인 방법

1 말씀 읽기

가정예배 시간이나, 하루 중 편한 시간을 정해, 부모님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따라 읽는 방법이 좋다. 너무 어린 유아부는 읽어주지만, 유치부는 어린이가 따라 읽게 하거나, 더듬거려도 직접 읽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읽은 후 표시는 어린이가 하도록 하며, 말씀 읽기표를 통해 꾸준히 달마다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교사가 피드백을 한다. (달마다 다른 스티커를 나누어 주어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가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

2 암송 말씀

1년치 말씀을 미리 만들어서 코팅한 후, 고리에 끼워서 말씀을 외우고 주일에 암송센터에 와서 담당 교사에게 암송한 말씀을 외우고 스티커를 받는다. (매주 같은 말씀을 외워도 된다. 1년 52주 동안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복음손

복음손으로 복음 제시 훈련을 시키고, 자신이 만든 복음손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복음손을 활용해도 좋다.)

4 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 기도방석을 만들어 매일 집에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한다. (또는 가정예배에서 활용한다.)

5 헌금

헌금의 의미와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어린이의 사진을 넣어 헌금 봉투를 만들고, 매주일 헌금을 봉투에 넣어 준비하게 한다.

6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구별된 삶의 의미를 담아 활동해 본다.



주성희 전도사

- 순복음강북교회 유년부 담당
- 파이디온선교회 VBS팀 학령전 강사

영적 역량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부서 사역 전략 _ 학령기



진리를 확신함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

어린 양을 잡아 그릇에 피를 담고, 우슬초 붓에 피를 찍어 문틀에 바르는 독특한 의식을 보며 한 어린이가 묻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길갈 지역을 지나던 중 그곳에 놓인 12개의 돌을 보며 묻습니다.

“아빠, 이 돌은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고 느끼며 묻고, 부모는 성심껏 대답하는 가운데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신앙 교육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큰 일”(행 2:11)을 보고 경험하여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에서 신앙 교육의 원리를 추출했습니다.

“큰 구원을 경험할수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원리로 저희 산오름교회 주일학교는 2015년에 두 가지 교육 방향을 잡아 사역을 진행합니다.

신앙교육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17세기 영국 청교도 지도자들은 체계적인 신앙 지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을 토대로 한다는 대전제 아래, 교회의 다음세대에게 바르게 가르칠 진리의 요체를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하 소요리문답)이지요. 소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습니다. 전반부(1-38번)는 ‘하나님에 관해 믿어야 할 진리’, 후반부(39-107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받은 자들의 마땅한 책임, 즉 ‘은혜와 율법’이라는 신앙의 정수를 고루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리문답으로 신앙을 지도할 때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답에는 교리만 있고 서사(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소요리문답 자체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1년 동안 단 하나의 성경 이야기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생생하고 역동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듣고 내면을 채워야 할 아이들에게 이 또한 균형 잡힌 교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교리’라는 음식을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

이지요. 소요리문답 5번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입니다. 평면적인 이 교리를 입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왕상 18:39)라는 백성의 외침에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외침을 듣고 따라하며 소요리문답 5번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시절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살아 있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이 놀라운 이야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세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흥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얼어붙은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오름교회에서는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교회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특별히 2015년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 아이들 앞에 펼쳐놓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삶의 터전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배웁니다. 또한 오늘날 보기 어려운 교회의 영광과 품격을 선배 신앙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공과 시간에는 초기 한국 기독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에는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조선 땅에 보급한 존 로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2월에는 사회적 신분도 극복하는 교회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준 금산교회(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소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어떤 보석 같은 이야기를 전할지, 금을 캐는 광부처럼 들뜬 마음으로 교회 부흥의 역사를 탐색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방향성을 통해 2015년 산오름교회 아이들이 진리에 확신을 둔 신앙,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견고히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동구 목사

- 산오름교회 어린이부 담당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VBS팀 팀장



영적 역량을 갖춘
청소년을 위한
부서 사역 전략

청소년 제자 훈련 고군분투기

처음 중등부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매일매일이 어려움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중등부로 보내셨습니까?'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뽀족한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사실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거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저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제자 훈련에 등록했고, 약 40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제자반 1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부서 안에서 말씀을 일으킨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고 했다. 하지만 첫 시간,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적어보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대로 적어내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접한 후, 제자 훈련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그렇게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운 제자 훈련 전략은 '말씀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기초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경 배경과 지식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스며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신앙의 주제를 제시하여 함께 토론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 영상,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중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제는 '기독교 이단'과 '북한 선교'였다.

제자 훈련 후에는 앞서 배웠던 주제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이단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탈북하여 남한에서 사역자가 되신 분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였다. 또한 NGO단체를 초청해서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 결과 제자 훈련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고, 제자반을 개설할 때마다 많은 학생이 신청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고, 제자 훈련이야말로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 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중등부 임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임원을 한다



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 등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부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단기선교에 참여할 자격을 주는 것도 이와 동일한 목적이라고 설명하자, 제자반 수료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이 혜택을 받아갔다. 덕분에 제자반을 시행한 이후로 중등부에는 항상 30명 이상의 임원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단기선교 역시 3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참석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로 이어지고 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말씀에 스며든 아이들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동일했다. 제자반 첫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했던 아이들도 3개월의 대장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앞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더라도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 지금까지 제자반 1기에서 9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쓴 신앙 간증문을 나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보물중 하나일 것이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결코 말씀과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 그분의 말씀에 점점 스며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품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힘들다고 말하며 고민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은 여전히 살아 숨 쉬었고,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지금도 그분의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말씀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살아 숨 쉴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이 생명이 전해지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고용된 농부임을 잊지 않고 매순간 멋진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이성호 강도사

- 예수인교회 고등부 담당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청소년팀 강사



믿음으로 승리해요

걸만 번지르르한 신앙...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신앙...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신앙...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깨닫고,
문제에 맞서 싸울 영적 군사를 키워야 할 때이다!

2015년, 다음세대를

믿음의 군사로 세우라!

	1과	2과	3과	4과
제목	하나님의 군사예요	믿음으로만 승리해요	날마다 승리해요	하나님만 선택해요
읽을 말씀	여호수아 1:1-9	여호수아 10:1-15	여호수아 23:1-13	여호수아 24:14-18
외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딤후 6:12).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
포인트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죄는 멀리하고, 예수님은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승리를 지키라!

+ 5월 1일 교재 출간!
+ 6월 1일,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www.paidion.org



오늘날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의 영적 상태는 크고 튼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이 비어 있는 쪽정리와 같다. 겉모습은 멀쩡하다. 때로는 매력적이고 화려하기까지 하다. 종교성도 있어 보이고, 예배와 의식에 참여하며, 주일을 지키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며, 신조들을 외우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신앙의 핵심은 알지 못하는 쪽정리이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며, 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모호하며 무기력하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치를 보고,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자신이 없으며,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대한다. 사회에 나가서는 놀림, 타협, 굴복, 낮은 자존감, 실패와 그 실패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기력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탄의 까부름에 저항하거나 맞서려는 의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리고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고 만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죄의식도 갖지 않는다. 종종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후회와 체념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기독교를 향한 공격에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숨어버린다. 거의 중병에 걸린 모습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영적 승리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신앙의 깊이나 귀함도 경험하지 못한 채, 부모를 따라 교회만 오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즉 패배주의 신앙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결과이다.

이러한 영적 무기력증의 치료약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제시하신다. 여호수아서에서 발견한 다음의 네 가지 진리로 우리는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1과 하나님의 군사예요

— 여호수아 1-5장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날마다 싸워야 할 전투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2과 믿음으로만 승리해요

— 여호수아 6-12장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은 다른 아닌 믿음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3과 날마다 승리해요

— 여호수아 13-23장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누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가 매 순간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4과 하나님만 선택해요

— 여호수아 24장

승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삶에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승리를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신앙의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한다. 강건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 열정을 쏟고 땀 흘리기 원하는 모든 사역자와 교사를 초대한다.



2015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교재

청소년 주제 소개



Victory in God

믿음으로 승리하라!

	1과	2과	3과
제목	God's Soldier	God's Way	God's Follower
본문 말씀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6-12장	여호수아 13-24장
외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딤후 6:12).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포인트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하나님만 항상 따르라!



1과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하라!
여호수아 1-5장



2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
여호수아 6-12장



3과
하나님만 항상 따르라!
여호수아 13-24장

먼저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그 신분 때문에 영적 전투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싸움을 한 것처럼 우리도 사탄과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싸움이 아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영적 전투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에 대한 명령에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상한 방법에도 모두 순종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다. 전략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나 경험,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정복 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며 땅을 차지해 나아갔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귀한 것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결과,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도 예수님과 가까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죄악에 패배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죄는 멀리함으로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원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처럼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와 백성을 모으고 선택과 선언을 하게 한다. 어떤 경우여라도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선언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 또한 어떤 경우여라도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만 서야 한다.

+ 5월 1일 교재 출간!
+ 6월 1일,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www.paidion.org



사역 후기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의 동행이 되어준 파이디온 청소년 겨울캠프

2014년 여름, 파이디온 청소년 캠프에서 큰 은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겨울에도 파이디온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캠프를 앞두고 대화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캠프에 참여하도록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셨습니다. 12명 중에서 4명만이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처음과 달리, 12명 모두 수련회에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신 스태프들과 인사를 하고, 재미있는 오프닝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스토리로 알아가는 'Follow Him' 시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지는 강의에 아이들의 자세와 집중력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표정은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단허가는 마음이 느껴져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들어 "어? 이거 배웠는데!", "나 이거 들어봤어~"라고 하며 반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못하지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서 배우는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이들에게는 힘들지만 분명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썰전' 시간에는 술 문제와 함께 중요하고 민감한 영역이지만, 쉽게 나누기는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하고 무관심하던 아이들이 점점 흥미를 느끼며 토론에 집중하고 먼저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는 생각을 꺼내어 줄 건강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정확한 성경의 가치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ollow Him' 시간에 배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한 부분을 콧으로 써서 영상 촬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큰 파도를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파도가 되기도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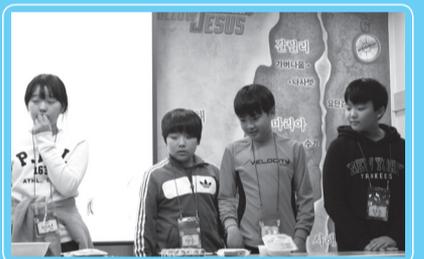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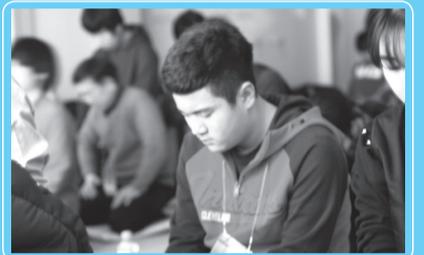
에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웃음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수련회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아이들은 피곤했다고 말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알듯 말듯 어려워하고 호기심을 갖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진 아이들도 있었으며, 힘들어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물어보면 아이들은 자신이 느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라도 아이들의 고백은 교사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으니깐요. 그런 점에서 수련회에서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고 신선한 경험은 아이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그 낮은 마음은 작은 터치에도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기억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도 모르게 내면에 쌓여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이번 수련회에서도 각자의 하나님을 한번 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서 아이들이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의 여정에 이번 파이디온 겨울캠프는 큰 도움과 충전이 되어주었습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섬김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세대를 향해 열정을 쏟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파이디온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지현 선생님
봉천동교회 중고등부



사역 후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도의 응답, 크리스천 티칭 세미나

2014년 6월 천안 여명교회에 부임하여 유치등부를 담당하게 된 저에게 세 가지 큰 사역이 맡겨졌습니다. 첫째는 7월 말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둘째는 어린이 제자훈련, 셋째는 교사대학이었습니다.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긴 터라, 어린이 사역에 대한 감각이 무뎠고 교사 훈련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제게 가장 큰 숙제는 교사대학이었습니다. 이미 교사대학에서 사용할 교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파이디온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천안에서 크리스천 티칭 세미나 장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연락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기도의 응답과 같았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하면 우리 교사들이 참석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장소 사용을 허락해주셔서 세미나가 준비되었고, 2015년 여명교회 1학기 교사대학은 파이디온선교회의 크리스천 티칭 세미나로 대체한다는 광고를 각 부서에 한 후에 교사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낼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한 세미나에는 7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중에서는 휴가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온 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강의를 듣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세미나의 첫 강좌는 크리스천 티칭에 대한 개관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게 될 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찾는 티칭의 6가지 요소들을 들으며 그들

안 제가 참 고집스럽게 사역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어, 저건 내가 생각했던 건데...’, ‘어, 저것도 내가 고민했던 문제인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강의를 진작 찾아 듣지 않았는지 자책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의 사역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인격, 중심으로 사역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유발과 재미 위주 사역의 병폐를 회개하고,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교육 방법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미나 강사이신 양승헌 목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강단에서 무릎을 꿇으며 시범을 보이고, 모든 교사에게 일일이 축복의 글을 적어주시는 겸손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티칭을 통해 얻은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바탕으로 이제는 삶으로 직접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는 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인철 목사

- 천안 여명교회 주일목장 총괄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2015년 파이디온선교회 지부 사역을 소개합니다

파이디온선교회에는 선교회본부 외에 세 개의 큰 축을 이루는 특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부'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에는 대학 지부,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 지부, 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이 각 지부들은 다음과 같은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 지부는 파이디온선교회가 태동한 충신대학교 한 곳에만 있습니다. 충신대학 지부는 대학생들의 자치 단체인 동아리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학 4년 동안 동아리 생활을 함께하며 다양한 시간을 갖습니다. 총회를 통해 임원단을 세우고 MT를 통해 동역자로서의 멤버십도 세우며,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지원하고, 매년 여름 낙도 선교나 해외 선교를 통해 다음세대 사역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훈련하기도 합니다. 파이디온 충신대학 지부는 모내기를 위한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해서, 동아리 생활을 통해 파이디온의 비전과 철학, 사역을 몸에 익힌 졸업생들이 파이디온의 티칭 강사나 찬양 강사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신대원 지부입니다. 충신 대학 지부가 사역자를 세우는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신대원 지부는 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이디온 신대원 지부는 합신 신대원 지부, 서울장신 신대원 지부, 침신 신대원 지부, 충신 신대원 지부까지 모두 네 곳입니다. 신대원 지부는 신대원 안에서 파이디온 정기 모임을 만들고 강좌를 개설하여, 파이디온선교회에 있는 좋은 콘텐츠를 신대원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파이디온의 철학과 콘텐츠를 함께 나누는 데 사역의 목적을 둡니다. 보통 매년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8주 정도 함께 모여서 CEE(Christian Education by Extension) 강의를

들으며 사역과 삶을 함께 나눕니다. 신대원에 재학 중인 전도사님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CEE는 강사 과정으로 개설됩니다.

지금까지의 신대원 지부의 사역은 CEE 과목의 강의 사역으로 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2013-2014년 두 해 동안 서울장신 신대원 지부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사님들이 파이디온 모임을 자체적인 동아리 수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인가 의아할 수도 있지만, 파이디온 전체 역사 속에서 신학대학원에 동아리방이 생긴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단순히 강의를 위해 모인 목적 지향과 임의적인 모임에서 다음세대 사역에 대한 진지한 사역적 고민과 삶을 나누는 사역공동체로 정체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지난 12월, 서울장신 신대원 지부의 동아리방 개설은 고무적인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지역 지부입니다. 지역 지부는 현재 김포,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에 있습니다. 각각 홍현주 전도사님(김포), 권민재 전도사님(대전), 강병호 목사님(대구), 박일형 목사님(광주), 박성덕 목사님(부산), 민경민 목사님(제주)이 지부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 지부는 지역 내에서 사역을 일으키거나 세미나를 개설합니다. 지난 1, 2월에도 꿈마루 세미나와 신인반 세미나, 신입교사 세미나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역들이 지역 지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 지부가 세워져, 파이디온과 함께 동역하는 다음세대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파이디온선교회 대외협력 팀

www.worldteach.co.kr ☎02-2652-0919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사용, 한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인정한 말씀 사역 기관인

디모데성경연구원 의 4,5,6월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강사 훈련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구약의 파노라마는 모두 154개(구약 각 77개)의 모션 (움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강의 사이사이에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시각 자료(구약 : 110여 개)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성경을 흥미진진하게 배우게 된다.

구약 · 신약

- 일시: 2015년 5월 11일(월)~13일(수)
- 장소: 소망교회 수양관
- 등록: 1차 등록(4/9~4/20) : 25만원
2차 등록(4/23~5/1) : 27만원
3차 등록(5/4~5/9) : 30만원

- ※ 강사 패키지 포함(학생용 교재, 인도자 지침서, 강의 동영상, 강의 실황 mp3, 강의용 PPT), 강사 자격 부여, 숙식 제공
- ※ 위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세미나에 신청하신 후 등록비 중 5만원을 선입금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 (신약의 파노라마)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수료하신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세미나

360도 리더

조직의 최고 리더로서 중간 리더들을 이끄는 것과 조직의 중간 리더로서 최고 리더를 도우며 따르는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 일시: 2015년 4월 20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퍼즐

행동 유형(DISC)을 알면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이 사라진다! 실제적이어서 쉽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

- 일시: 2015년 6월 1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는 삶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는 우회로를 만날지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 참 믿음과 용기를 지닌 그리스도의 삶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 일시: 2015년 5월 7일(목)
- 장소: 목동지구교회

NEW

생각의 변화를 시도하는 리더

늘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 생각의 변화를 시도하는 리더가 되도록 도우며 당신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새로운 생각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 일시: 2015년 6월 15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함께 승리하는 리더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며 함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인간 관계 신뢰의 법칙을 다룬다.

-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가르치는 이의 가지 법칙

가르치는 이가 가져야 할 기초와 원리를 쉽고도 분명하게 제시하여 바로 사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일시: 2015년 6월 22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20%
강사 패키지 할인

제 1회
모임

행복한 부부생활 플러스 설명회 NEW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몸을 이룬 부부가 말씀의 원리에 따른 부모 공경, 부부의 성생활, 가정경제 의사소통에 관한 균형잡힌 지침을 준다.

- 일시: 2015년 4월 6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 크리스천 베이직 설명회

(구약/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로 성경개관과 본문의 요약 및 핵심을, (크리스천 베이직)으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배운다.

-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구약 · 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 & 크리스천 베이직 설명회

(구약/신약의 파노라마 플러스)로 성경개관과 본문의 요약 및 핵심을, (크리스천 베이직)으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배운다.

- 일시: 2015년 6월 29일(월)
- 장소: 목동지구교회

※ 디모데성경연구원의 각 세미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 이야기

크리스천 스토리텔러



양승헌
249쪽 | 도서출판 디모데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흠뻑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요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라고 묻기만 하면,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대본을 한 바닥 적어주고 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전체 이야기를 줄줄 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가진 힘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에서 대표로 섬기셨던 양승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의 능력을 가장 잘 아는 탁월한 교사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크리스천 스토리텔러」는 변하지 않을 이야기,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인생을 인도해줄 유일한 이야기에 관한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대를 이어 전해 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을 다음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에는 한 사람의 크리스천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위대한 이야기를 다음세대에 전해야 할 크리스천 스토리텔러 교사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크리스천 스토리텔러, 그 소명과 목적에서는 스토리텔러 교사의 정체성을 ‘리더 양’(Leader Sheep)으로 소개합니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따르고, 뒤따르는 어린 양을 이끄는 리더 양인 주일학교 교사의 정체성은 목자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입증됩니다. 목자와 양을 사랑하는 교사야말로 주님의 일을 나누어 맡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크리스천 스토리텔러 교사는 예수님이 아이들 속에서 일하시는 동안 그들 밖에서 일하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2장 그 의미와 반성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 에너지인 예수님과 아이들을 생각해보라. 이 두 에너지는 당신과 나의 자산이며 동시에 기회이다.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두 에너지를 합치는 것이다.”(68쪽)라는 양 목사님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융합과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입니다. 스토리텔러 교사는 예수님과 아이들이 서로 만나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3장 그 가치와 책임에서는 다음세대가 현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 네 개의 ‘리’, 즉, ‘믿음’과 ‘말씀’, ‘모델’과 ‘물증’을 기억하고, 영적 계주 선수가 되어 다음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128쪽).

4장 그 원리와 전략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정

보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성경으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쇠락한 때는 말씀은 적게 가르치고, 많이 놀 때였음을 기억하고(185쪽),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며, 알바트로스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5장 그 비전과 도전에서는 다음세대 바나나 나무를 세우고 죽어 양분을 공급하는 바나나 나무를 소개하며 바나나이즘으로 살 것으로 도전합니다(220쪽). 크리스천 스토리텔러로서 온 세계를 품고 사는 제자로 우리의 다음세대를 세울 것을 도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다음세대의 내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보다 다음세대가 살아갈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크리스천 스토리텔러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김대만 목사

•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파이디온선교회 대외협력 팀 팀장





신앙을 삭제하고 있는 다음 세대, 존립의 기로에 선 위기의 주일학교
내일을 준비하기에 지금도 늦지 않다. 그러나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스토리텔러

다음세대의 내일을
준비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



양승헌 지음 | 152*215 | 249쪽 | 12,000원

한국 주일학교 교사들의 멘토 양승헌 목사
그가 전수하는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로드맵이자, 어린이 사역 지침서

그들의 의식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희미해진 다음세대들이 자라고 있다. 그들이 주역이 될 한국교회의 미래는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이 아닌, 깊은 애통과 회한의 날이 될 수 있다. 다음세대를 보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이 시대 모든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우리가 죽는 날, 누군가 그 믿음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믿음의 스토리를 전해주자. 그것이 우리가 다음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이 책은 가정과 주일학교를 비롯한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기성세대가 배우고 경험하고 살아낸 믿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러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일깨운다. 또한 저자가 지난 42년간 다음세대 사역자로서 겪은 시행착오들과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 그리고 성경 연구의 결과들과 교육학적 원리들을 전수하여 다음세대 사역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긍지와 열정을 잃어버린 부모와 교사, 사역자의 심장에 노크하고, 무엇이 자녀교육의 진정한 성공인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추천 **김요셉**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목, 수원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서정인** (한국컴패션 대표)

크리스천다운 삶과
참된 가르침을 위하여
양승헌 크리스천
시리즈



크리스천다운 삶

240쪽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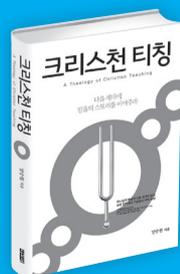
크리스천의 신앙 여정을
인도하는 인생 로드맵



크리스천 기도

205쪽 | 12,000원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로
승화시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



크리스천 티칭

286쪽 | 16,000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



크리스천 기도 워크북

105쪽 | 10,000원

크리스천 기도를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지침서

※〈말씀목록〉 별도 수록

생생한 선교사 이야기 _ 병상일기

병상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적

아내와의 병원 생활은 묵상과 반성,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하는 도시 속 수도원과 같다. 병원 생활을 일기로 정리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인생의 의미와 부부의 정을 다시 음미하는 중이다.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소꿉장난하듯 아내를 간호하며, 그저 감사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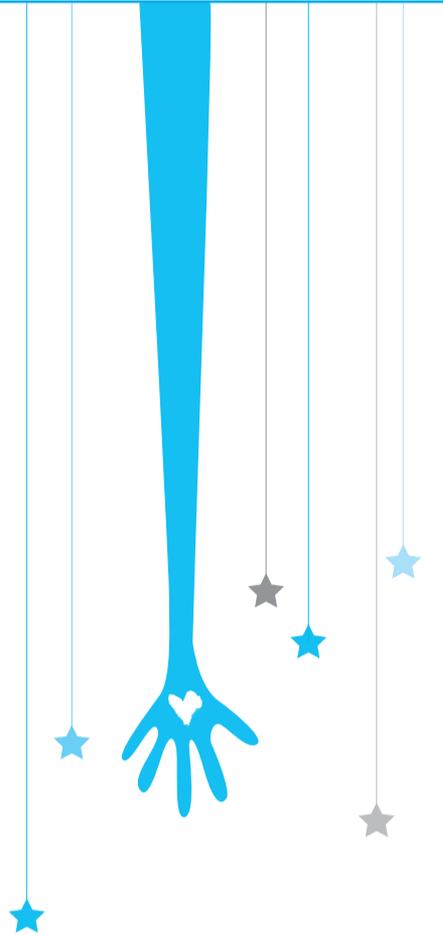
‘의사, 간호사, 도우미, 행정 스태프, 환자, 환자 보호자, 주사, 검사, 병원, 시스템, 약, 피, 침대, 장례식장...’ 병원은 또 하나의 갑과 을의 문화 속에서 돈과 전문가의 파워가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더 증가시키는 곳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의료 전문가들의 짜인 논리와 지식에 내맡긴 채, 약으로 찢들어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병원은 고마운 곳이다. 의사의 도움이 있기에 치료가 가능하고, 가끔은 자비의 손길도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도움은 때를 따라 환자의 필요를 채우는 진정한 섬김이다.

나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빈손 인생을 향한 건강 비법’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자 노력 중이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도 함께하고 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의 여러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매일 하나님과 영혼육의 자유함을 공유하려고 애쓸 때 비로소 나는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병상의 아내는 열과 약 기운, 아픔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아내 곁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가? 이 기적은 내 온 몸에 깊은 감사함으로 스며든다.

아내와의 동행 속에서 십자가 은혜의 순례 길을 헤아려본다. 아내와 함께 다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의미에 또 다시 남은 삶의 모든 것을 걸어본다.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험한 세상을 따스하게 변화시킬 그분의 마음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아내의 병을 온전히 치유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아내와 함께하는 병원 생활은 일상이자 삶이며, 사역이다. 인생에 이런 묘미가 있다니! 세상을 다시 헤아려 보는 중이다.



이영민 선교사는 아내 김명숙 선교사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GBT선교회 소속으로 남미 에콰도르에서 25년간 사역하던 중,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귀국했다. 김명숙 선교사는 지난 1월 8일, 작은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은 후 현재 회복 중이다. 이 가정은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 다시 에콰도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picok 명찰/봉투 (*주문제작 가능)

어린이 달란트 (*주문제작 가능)

∞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

www.picok.co.kr
TEL: 070.8683.3301

피콕건티슈 (*주문제작 가능)

WITH 워드

소중한 사람이 깨끗하도록 하나하나에도 메시지를 담아...

메시지 액자 (*주문제작 가능)

선교안테나

주일

양영학, 한경신 선교사

MK: 성지, 성애, 성국

사역지: 홍콩 및 X국
사역: 서점 운영, X국 지역 책 보급

1.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늘 선교 사역에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3. 성경학교의 안전과 졸업생들의 사역이 열매가 있도록.
4. 선교사 훈련원의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자녀들의 결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종진, 이은숙 선교사

MK: 은혜, 은총

사역지: 태국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세대 양육

1. 주님이 세우신 소수민족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2.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를 통하여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도록.
3. 한태간의 체류 비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4. 김 선교사 가정과 양가 어머니의 건강, 특별히 장모님의 뇌졸중이 회복되도록.
5. 큰딸 은혜와(대 3) 은총이(11학년)의 학업의 필요를 위하여.

월요일

이미경, 데일 선교사

MK: 룩, 조이

사역지: 탄자니아

1. 세미나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재정비하여 사역을 시작하는 모든 스태프의 공동체와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도록.
2. 센터 사무실을 올해 말까지 비우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도록.
3. 싱가포르 건축을 책임질 신실한 사람을 순직하게 만나도록.
4. 우물을 팔 회사 선정을 잘 하도록.
5. 함께 동역하는 캠프 교사 세 자매가 탄자니아를 선교학습 차 방문하는데 잘 적응하도록.
6. 사고 후 허리를 수술하고 회복중인 데일 선교사와 룩, 조이가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7. 백이조, 백심조 후원자가 증가하도록.

안드레, 미스바 선교사

MK: 드보라, 아모스

사역지: 국내
사역: 국내 선교 자원 동원과 훈련

1. 주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사역자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2. 고국에서의 사역을 위해.
3. SUFAN(북아프리카 번역 프로젝트)를 위해 -이 일을 맡을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4. 가족과 양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

화요일

김용준, 이옥경 선교사

MK: 하람, 하진, 이레

사역지: 아르헨티나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세대 양육

1. 저희 부부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2. 건축 중인 이레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건축비와 안전한 공사를 위해.
3. 아르헨티나의 안정과 회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
4. 하람이의 대학적응과 하진이의 대학진학, 이레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

아브라함, 사라 선교사

MK: 야곱, 요셉, 한나

사역지: S국
사역: 교회 개척 및 교육 사업

1. WS, AG, MO, 지역에 버벌 종족(제네가) 사역을 위한 새로운 필드를 세울 수 있도록.
2. 버벌 종족 안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3. 리더십을 이양받고 사역하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Tw, Da, Jws, Jam, Kio)들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강력한 기쁨 부으심으로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4. 사역의 마무리 단계를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희 가정을 주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도록, 무엇보다 주께서 주시는 강력한 용기와 담력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수요일

이영민, 김명숙 선교사

MK: 문화, 용호

사역지: 국내
사역: 본부 사역

1. 김명숙 선교사의 건강과 신앙의 회복을 주시도록.
 - 신장이식 수술 이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 이식한 신장이 몸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2.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한 아들 용호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3. 아내를 옆에서 간호하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더 주님께 집중하도록.

민윤기, 안은자 선교사

MK: 하영, 하람

사역지: 태국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전도, 훈련

1. 둘째 하람이가 미대입시를 준비하는데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도록.
2. 2015년 어린이사역을 위한 교재 출판비(약 400만원)와 강습회를 위한 재정(350만원)이 채워지고 훈련이 꼭 필요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3. 교사 훈련과 성경학교 일정을 위해-지역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지도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돕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팔이 함께하시고 어린이들(산속 어린이들 포함)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4. 2015 교재 출판을 위해 개인이나 교회들이 10권 혹은 20권, 50권, 100권 후원에 동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5. 어프라운 교회의 세례식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되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목요일

김혜정 선교사

사역지: C국

1. 매주 토요일 A교회에서 15명이 교사 훈련을 받는데, 이 과정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지역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2. 강사 교육을 통해 각 주일학교 현장과 미래를 바라보며 사역을 통해 헌신된 주일 학교 전임 사역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3.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헌신한 사역자들과 하나될 수 있도록.
4. 지혜롭게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5.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동생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이태하, 김혜한 선교사

MK: 은혜, 은선

사역지: 캐나다
사역: 교회 협력 및 다음세대 양육

1.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도록.
2.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쁨부으심을 경험하도록.
3. 은혜, 은선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 이름을 알게 되도록.
4. 기도와 재정의 평생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금요일

박종덕, 신유현 선교사

MK: 세하, 주하

사역지: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780여 종족 중 미전도 종족인 220여 종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2. 깔리만탄에서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멋진 사역 팀을 이루어 자립 교회들을 세워 나가며, 전도처 개척 및 교회 개척 사역, 성도 제

- 자훈련 사역,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3. 나하야(Nahaya) 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바바르(Babar)지역, 투마방(Tumabang)지역, 팍마얌(Pakmayam), 타렝(Tereng), 빠위스(Pawis), 마울(Maur) 지역에 교회, 기도처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지도록.
 5. 홈스쿨을 통해 가르치는 세하, 주하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빠르게 자라도록.
 6. 함께 동역하게 될 권태윤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언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전미자 선교사

사역지: 토*

사역: 코*리 족 사역

1. 지난 1월에 시작한 5개월간의 안식월 동안 지난 25년간의 사역을 잘 정리하고, 다음 25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 안식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건강한 여정이 되도록.
3. 안식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데, 언어학원에서의 적응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함께 배우는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4. 안식월 후에 토고로 다시 돌아가 6월 말-8월 중순까지의 사역을 잘 준비하고 감당하도록, 이후 남은 안식년 동안 한국에서 에스라성경대학교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토요일

정바나바, 이예스터 선교사

MK: 예은, 예광, 예희

사역지: 소아시아(이슬람권)
사역: 신학교 교육, 어린이 훈련, 전도

1. 갈라디아 사랑교회의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2. 성경 통신자들을 잘 돌보고, 빌립보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후원 헌금

후원 헌금은 다음세대를 위한 국내·해외 직접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2015년 12월 1일~2015년 2월 28일

* 괄호 안의 숫자는 구좌수입니다(가나다 순), 한구좌: 5,000원

후원하신 분 강병호/이한나(40), 강숙희(12), 고종율(100), 김민기(12), 김상신(80), 김영식(40), 김영민(10), 김영희(4), 김지형(6), 김진현(80), 김치현(20), 김친수(40), 김효영(12), 박영란(24), 심라영(6), 양이삭(10), 유상실(30), 이미란(64), 이상건(2), 이성현/임성주(4), 이정남(18), 장주동(60), 전해란(20), 전희영(192), 조만제(18), 진양숙(32), 진은현(12), 최광희/박효주(30), 최은진(정혜원)(30), 하희옥(82), 한규철(30), 한정호(24)

후원 교회 과천중앙교회(120), 광주새순교회(80), 남광교회(60), 남서울교회(80), 남서울은혜교회(600), 대림교회(40), 대영교회(60), 동백사랑의교회(60), 동원교회(60), 사랑의교회(20), 새로남교회(60), 서현교회(60), 성광교회(60), 세대로교회(180), 송월교회(60), 수원원천침례교회(80), 수지수정교회(60), 양산성광교회(30), 예사랑교회(12), 중만교회(12), 주은혜교회(30), 호산나교회(60)

후원 단체 (주)에스코컨설턴트 김승렬(60), 홍신대학지부(10)

콘텐츠 판매 수익금 후원자 강영옥, 김대만, 김상기, 김정, 김진현, 김친수, 김혜인, 김효영, 도은아, 박보배, 박성덕, 박소연, 박종인, 박효주, 방승미, 서유정, 송유진, 순현주, 심라영, 오세영, 오은지, 이미란, 이성환, 이주안, 이한나, 이현우, 임미옥, 전해란, 정진영, 주성희, 최경직, 최형

• 문의: 070-4099-7710

후원 안내

온라인으로 후원금 보내기:

처음 후원하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처를 꼭 말씀해주시고.

- 국민은행 767437-01-009907 파이디온선교회
- 신한은행 140-009-951346 파이디온선교회
- 우리은행 1005-402-245623 파이디온선교회
- 농협 301-0128-1734-11 파이디온선교회

자동 이체로 후원금 보내기:

매번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은행 간 자동 이체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3년까지 예정하실 수 있습니다(타 은행일 경우 300원의 수수료 부과).

파이디온 소개

파이디온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선교회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막 10:1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 다음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사역을 펴고 있습니다.

- ① 세계의 다음세대를 세웁니다.
- ② 다음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일꾼을 세웁니다.
- ③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 ④ 다음세대를 세울 도구를 빛습니다(도서출판 디모데).
- ⑤ 다음세대의 문화 속에 영원한 진리를 담습니다.

파이디온 뉴스

1. 출산
양이삭 전도사- 아들 양이레 2014년 12월 10일 출생
2. 결혼
김이슬 전도사- 2015년 3월 7일(소명중앙교회)
3. 졸업(2015년 2월)
 - VBS 팀 강사 양이삭, 박원실, 김모세(총신신대원), 강한숙 전도사(합동신대원), 한규덕, 김이슬, 윤광선 전도사(서울장신신대원), 한소연 전도사(침신신대원)
 - 청소년 팀 강사 김홍주, 이용휘(총신신대원)
 - 문화사역 팀 강사 이인혜 강사(감신신대원), 박아영 전도사(총신신대원)
 - 대외협력 팀 팀장 김대만 목사(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4. 복직
심라영 전도사가 산후 휴직을 마치고 예수마당 팀장으로 복직했습니다. 예수마당 개정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5. 신입강사 오리엔테이션
지난 2월 12일(목)에 제일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신입강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신입강사가 파이디온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파이디온 기도 제목

커리큘럼 팀

1. NK 교재의 내용이 잘 담겨진 편집, 디자인, 그림 작업이 되도록.
2. NK 교재의 세밀한 사항들이 정리되고 결정되어 진행되도록.
3. 새로 시작한 SC 교재 개발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4. SC 커리큘럼이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잘 개발되도록.

사역자훈련 팀

1. 3월 첫 주부터 시작한 바나나 농장 디렉터 스쿨이 한국교회 교회교육을 바로 세우는 디렉터 양성소로 쓰임받도록.
2. 전도사학교를 수강하는 동역자들이 사역 현장에서 다음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로 서도록.
3. 목요교사학교가 지역교회 교사를 바로 세우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4. 사역자훈련 팀 세미나의 모든 강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강의로 잘 섬기도록.

VBS 팀

1. 2015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도우시기를. 이번 여름을 통해 이 시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2. 함께 동역하는 강사들이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문화사역 팀

1. 예비인도자 세미나에서 훈련된 교사들이 각 교회의 예배를 바르게 섬기는 사역자로 서도록.
2. 여름 VBS 음반 콘텐츠 작업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좋은 도구가 만들어지도록.
3.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문화사역 팀의 동역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

청소년사역 팀

1. 출간되는 2015 청소년 캠프 교재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도록.
2. 강의를 준비하는 청소년 사역 강사단의 사역 현장과 가정에 복주시도록.
3. 진행하고 계획하는 단위 세미나들을 통하여 청소년 사역자들을 연결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캠프사역 팀

1. 어린이/청소년 여름 캠프 팀에 헌신된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2. 어린이/청소년 여름 캠프 기획에 지혜주시도록.

대외협력 팀

1.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한 장소가 잘 결정될 수 있도록.
2. 4월-5월 진행되는 해외지도자훈련 사역에 강사가 잘 연결되어 현지 지도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3. 지역 지부 및 캠퍼스 지부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6. 사역
1-3월
 - 겨울 파이디온 세미나 성경학교 교사강습회(1/10,12,13,17)
 - 크리스천터칭 일일세미나(1월 중)
 - 1일 전도사학교(2/2)
 - 다음세대 설교세미나(2/9-12)
 - CEE 강사훈련세미나(2/23-27)
 - 다음세대 예비인도자세미나(2월-3월)
 - 꿈마루 제자훈련 세미나(2/7)
 - 2015 청소년 겨울 캠프(1/19-20)
 - 청소년사역자컨퍼런스(2/23)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역자와 교사,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지부 세미나
 반목회 신입교사훈련(1월-부산, 2월-대구), 신입반 세미나(1월-제주, 대전), 꿈마루 제자훈련세미나(2월-대전) 등이 각 지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내

〈비전트리〉를 구독하기 원하신다면

파이디온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aidion.org에 로그인 후, 회보 신청란에 e-mail 혹은 우편 발송 선택

회보 후원금으로 파이디온 사역에 동참하여주세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회보를 접할 수 있고 다음세대의 가슴에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원_ 회보 후원금은 회보 제작에 사용됩니다. [신한은행 140-009-951346](http://www.paidion.org)/ 파이디온선교회

* 문의: 070-4099-7710